

Mussar — Devarim Ch. 32

Devarim 32

Devarim 32 is Moshe's final great song of witness. It moves from YHWH's faithfulness, to Yisrael's forgetfulness, to judgment, and finally to restoration. Its Mussar message is especially concerned with **memory, gratitude, humility, discernment, and returning to YHWH.**

1. Let the Teaching Fall Like Rain — Devarim 32:1–3

“Let my instruction fall as rain, my speech drop down as dew, as fine rain on the tender plants, and as showers on the grass.”

Moshe compares Torah instruction to both **rain and dew**. Rain may strike strongly; dew settles almost unnoticed. Spiritual instruction also comes in different forms. Sometimes we need a strong rebuke; at other times a quiet word changes the heart.

Mussar: Do not judge instruction merely by how pleasant it feels. Ask whether it is causing something righteous to grow within you.

“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이슬처럼
맺히며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모세는 Torah 의 교훈을 **비와 이슬**에 비유합니다.
비는 강하게 내릴 수 있지만 이슬은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조용히 맺힙니다. 영적인 교훈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강한 책망이 필요하고, 때로는 조용한
한마디가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무사르: 교훈이 얼마나 듣기 좋은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의로운 것을 자라게
하고 있는지를 물으십시오.

2. The Rock Is Perfect — Devarim 32:4

“The Rock! His work is perfect, for all His ways are right-ruling, an Ėl of truth and without unrighteousness, righteous and straight is He.”

Moshe establishes YHWH's character before describing Yisrael's failure. This is crucial. When circumstances become difficult, human beings easily judge YHWH through their circumstances rather than judging their circumstances through what they know of YHWH.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며 불의가 없으신
Elohim 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모세는 Yisrael 의 실패를 말하기 전에 먼저
야훼의 성품을 확립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야훼를 통해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통해 야훼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Mussar: When you cannot understand the path of YHWH, do not allow what you do not understand to erase what you already know about His faithfulness.

무사르: 야훼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미 알고 있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지워 버리게 하지 마십시오.

3. Remember the Days of Old — Devarim 32:7

“Remember the days of old, consider the years of many generations. Ask your father and let him show you, your elders, and let them say to you.”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Torah repeatedly treats **forgetfulness as a spiritual danger**. Moshe does not merely say, “Learn history.” He says, **“Remember.”** Covenant memory must become personal memory.

Torah 는 반복해서 **망각을 영적인 위험**으로 다룹니다. 모세는 단순히 “역사를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억하라”*****고 합니다. 언약의 기억은 개인의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The younger generation is also commanded to **ask**. Wisdom requires humility—the recognition that those who walked before us may know something we do not.

젊은 세대에게는 또한 **물으라**고 명합니다. 지혜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걸어간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Mussar: A generation that stops asking its elders eventually begins believing that wisdom began with itself.

무사르: 어른들에게 묻기를 멈춘 세대는 결국 지혜가 자기 세대에서 시작되었다고 믿게 됩니다.

4. He Found Him in a Wilderness — Devarim 32:10–12

YHWH found Yisrael in the wilderness, guarded him **“as the apple of His eye,”** and carried him like an eagle carrying its young.

야훼께서는 광야에서 Yisrael 을 만나시고 **“자기의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며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듯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The wilderness appears empty, yet it becomes the place where Yisrael learns dependence upon YHWH. What looks barren can therefore become a school of faithfulness.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Yisrael 은 야훼를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황폐하게 보이는 곳이 오히려 신실함을 배우는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Mussar: Do not despise every wilderness season. Sometimes YHWH removes what normally supports us so that we discover what has always sustained us.

무사르: 모든 광야의 시간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야훼께서는 우리가 평소 의지하던 것을 거두심으로써, 실제로 우리를 붙들어 온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5. Yeshurun Grew Fat and Kicked — Devarim 32:15

“But Yeshurun grew fat and kicked... then he forsook Eloah who made him, and scorned the Rock of his deliverance.”

One of Ha’Azinu’s most uncomfortable lessons is that adversity is not our only spiritual danger.

Prosperity can also test the soul. Need naturally reminds us that we are dependent; abundance can create the illusion of self-sufficiency.

Mussar: The question is not merely whether you can remain faithful when you have nothing. Can you remain grateful when you have everything?

“그런데 Yeshurun 이 기름지매 발로 찼도다... 자기를 지으신 Eloah 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Ha’Azinu 가 주는 가장 불편한 교훈 중 하나는

고난만이 영적인 위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요**

역시 영혼을 시험합니다. 부족함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하지만, 풍요는 스스로 충분하다는 착각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무사르: 중요한 질문은 아무것도 없을 때 신실할 수 있는가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6. You Forgot the One Who Gave You Birth — Devarim 32:18

“You neglected the Rock who brought you forth, and forgot the Ėl who fathered you.”

The tragedy is described as **forgetfulness**. Yisrael did not simply misunderstand a doctrine; they forgot the One from whom their life and identity came.

Mussar: Sin often begins before the sinful act itself. It begins when gratitude fades, memory weakens, and YHWH slowly moves from the center to the margins of consciousness.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Ėl 을 네가 잊었도다.”

비극은 **망각**으로 묘사됩니다. Yisrael 은 단순히 어떤 교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정체성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잊었습니다.

무사르: 죄는 종종 죄의 행동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기억이 희미해지고,

야훼께서 의식의 중심에서 서서히 가장자리로
밀려날 때 이미 시작됩니다.

7. Consider Your Latter End — Devarim 32:28–29

“If they were wise, they would understand this, they would consider their latter end!”

Torah defines wisdom here in a striking way: the wise person considers **where the present path will eventually lead**. Foolishness sees only the immediate pleasure, advantage, anger, or desire. Wisdom follows the road all the way to its destination.

Mussar: Before making an important choice, ask not only, “What do I want now?” but **“If I continue in this direction, who will I become?”**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Torah 는 여기서 지혜를 매우 인상적으로 정의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걷고 있는 길이 결국 어디로 이끌 것인지** 생각합니다. 어리석음은 당장의 즐거움, 이익, 분노, 욕망만 봅니다. 지혜는 그 길의 마지막까지 바라봅니다.

무사르: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만 묻지 말고, ***“이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물으십시오.

8. Their Rock Is Not Like Our Rock — Devarim 32:31

“For their rock is not like our Rock—even our enemies are judges.”

Every person builds life upon some “rock”: wealth, reputation, intellect, power, relationships, ideology, or YHWH. The difference often remains hidden until pressure comes.

Mussar: Trials do more than test our strength; they reveal what we have actually been standing upon.

“진실로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모든 사람은 어떤 “반석” 위에 삶을 세웁니다. 재물, 명예, 지성, 권력, 관계, 사상, 혹은 야훼입니다. 그 차이는 압력이 찾아오기 전까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사르: 시험은 단순히 우리의 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무엇 위에 서 있었는지를 드러냅니다.

9. Vengeance Belongs to YHWH — Devarim 32:35–36

“Vengeance is Mine, and repayment... For YHWH judges His people and has compassion on His servants.”

Human beings often want immediate justice, especially when wounded. Ha’Azinu reminds us that final judgment belongs to YHWH. This does not eliminate justice; it removes personal vengeance from our hands.

Mussar: Seeking what is right is different from needing to personally repay every wrong. Do not allow another person's wrongdoing to turn bitterness into your master.

10. See Now That I, I Am He — Devarim 32:39

“See now that I, I am He, and there is no mighty one besides Me. I put to death and I make alive. I have wounded, and I heal.”

After the entire song exposes human instability, the attention returns to the One who does not change. Nations rise and fall; strength appears and disappears; human loyalties fluctuate. YHWH remains.

Mussar: Spiritual stability begins when the center of life moves from the changing self to the unchanging YHWH.

Core Mussar — Devarim 32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라.”

사람은 상처를 입었을 때 특히 즉각적인 정의를 원합니다. Ha’Azinu 는 최종적인 심판이 야훼께 속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정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게 합니다.

무사르: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과 모든 잘못을 내가 직접 갚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쓴뿌리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Elohim 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노래 전체가 인간의 불안정함을 드러낸 후, 시선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께 다시 돌아갑니다. 나라들은 일어나고 무너지며, 힘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인간의 충성심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그대로 계십니다.

무사르: 영적인 안정은 삶의 중심이 변화하는 나 자신에게서 변하지 않으시는 야훼께로 옮겨질 때 시작됩니다.

Remember when life becomes comfortable. Prosperity must deepen gratitude rather than produce forgetfulness.

삶이 편안해질 때 기억하십시오. 풍요는 망각을 낳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더욱 깊게 해야 합니다.

Think about the end of the road. Wisdom does not merely evaluate today's choice; it considers tomorrow's character.

길의 끝을 생각하십시오. 지혜는 오늘의 선택만 평가하지 않고 내일의 인격까지 생각합니다.

Receive correction like rain. Not every uncomfortable word is harmful; some words disturb us because they are watering something that needs to grow.

책망을 비처럼 받으십시오. 불편한 말이 모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은 자라야 할 것을 적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Do not confuse blessing with independence. The more YHWH provides, the more reason we have to remember the Giver.

복을 독립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야훼께서 더 많이 공급하실수록 우리는 주시는 분을 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Build upon the Rock. Trials eventually expose whatever we have made foundational to our lives.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시험은 결국 우리가 삶의 기초로 삼아 온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Remember YHWH before you need to be reminded. Ha'Azinu warns that forgetting YHWH in prosperity can eventually make hardship necessary to awaken remembrance.

깨우침을 받아야 하기 전에 야훼를 기억하십시오. Ha'Azinu 는 풍요 가운데 야훼를 잊으면 결국 고난을 통해 다시 기억해야 할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The central Mussar of Ha'Azinu is therefore:

Do not wait for the wilderness to remember the Rock who carried you through it.

광야가 찾아온 후에야 당신을 그 광야에서 품어 주신 반석을 기억하려 하지 마십시오.